선운사 본말사 불교유산 면면을 살피다

불교중앙박물관 · 선운사 공동
11월 18일 국립민속박물관서
선운사 三지장, 내소사 동종 등
본말사 불교유산 가치 되새겨
내년 '도솔산 선운산'展 개최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과 선운사는 11월 18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선운사 본·말사 불교문화유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개회식 후 진행된 기념촬영.

"도솔산 선운사에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제작된 3구의 지장보살 좌상이 봉안돼 있습니다. 이는 선운사가 전통적 지장신앙과 연결되며, 오늘날까지 지장신앙의 성지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와 말사에 소재한 불교문화유산의 가치와 면면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총 2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인 고창 선운사, 부안 내소사, 부안 개암사 등이 봉안·소장한 조각, 회화, 공예, 서지, 섬유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문 학자들이 조명했다.

1부인 '선운사의 불교문화유산'에서는 불교조각사 연구의 권위자인 정은우 부산박물관장이 '시대양식을 담은 도솔산 선운사의 삼지장'을 통해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의 가치를 살폈다.

정 관장은 "이 삼지장은 모두 독존상으로 제작됐으며 머리에 두건을 쓴 피건상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면서 "한 사찰에 시기를 달리하면서 피건지장상을 독존으로 제작해 모시는 경향은 매우 드물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운사 삼지장은 우리나라 지장상 조성과 지장신앙의 유행을 선도한 독보적 작품으로서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며 "삼지장의 구체적 제작시기 및 봉안처, 여말선초의 지장 관련 기록 그리고 선운사 지장신앙의 성격 및 참법의 의례구조에 대해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부 '선운사 말사의 불교문화유산'의 기조강연자로 나선 한국 금속공예사 권위자인 최응천 동국대 석좌교수(전 국가유산청장)는 '국보 내소사 동종과 장인 한중서'를 통해 고려 최고 동종인 내소사 동종을 조성한 장인 한중서를 조명했다.

최 석좌교수에 따르면 한중서는 직업인으로서 주금장으로 활동한 사장(私匠)이었지만, 고려사명 '반자' 조성 시기에는 시위군에 소속돼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병역을 하며 한중서는 관장(官匠)으로 자리 잡아 이후 대장(大匠)의 직급을 받고 나중에는 대장동정(大匠同正)까지 올라가게 된다.

'내소사 동종'은 뛰어난 장인이었던 한중서의 역작으로 "어느 한곳 부족함 없이 완벽한 주조 기술은 물론이고 용뉴부터 상·하대의 세부 문양과 종신의 삼존상까지 화려함을 갖춘 걸작"이라는 게 최 석좌교수의 평가다.

이어 "사찰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정비하며 중요 국가유산으로의 승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물로 지정된 범종 가운데 국보로의 승격이 가능하다고 평가된 고려 범종 중 가장 으뜸으로 꼽힌 종이 바로 '내소사 동종'"이라며 "한중서라는 최고의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는 가치 외에도 아름다운 세부장식은 고려 범종의 백미로 꼽기에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컬링, 낙산사 템플스테이서 체험하세요

12월 26~28일 컬링템플스테이
소리명상, 스님 차담 등 구성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상.

여름엔 서핑, 겨울엔 컬링. 양양 낙산사(주지 일념 스님)가 또 한번 새로운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낙산사는 "오는 12월 26~28일 2박 3일 동안 겨울 이색 체험으로 '컬링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컬링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중에게 친숙해진 스포츠지만 여전히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동계스포츠다. 스톤을 과녁 중심에 정확히 보내기 위해 필요한 극도의 집중과 몰입이 불교명상과 닮아 있다.

낙산사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컬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더불어 바다를 마주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파도명상', 크리스탈 싱잉볼을 이용해 심신을 이완시키는 '소리명상', 개인적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스님과의 차담, 즉문즉설'도 함께 진행한다.

여름 시즌 '서핑템플스테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선일 스님은 "명상 원리를 현대적 체험과 결합해 MZ세대부터 가족 단위 참가자까지 아울러 자연과의 조화로운 수행을 경험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컬링템플스테이 예약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https://naksansa.templestay.com)에서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 단체예약은 별도 문의. 신중일 기자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의상 스님

'바다 건너온 법성세계' 개막
11월 23일까지 토포하우스서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이 13세기 '법성게' 선율을 현대적으로 복원한 음악을 들으며 수행하는 듣기명상(호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송정인 수습기자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와 불교문화콘텐츠개발원(원장 우석 스님)은 11월 14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바다를 건너온 법성세계'를 개막했다.

이번 문화체험전은 의상 스님의 전기(傳記)를 회화로 기록한 '화엄연기(華嚴緣起)'를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표현,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감동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일본 쇼묘지에 전하는 13세기 자료 '화엄원융찬'의 성명보(聲明譜)를 근거로 복원한 악보를 통해 그동안 잊혔던 우리의 '법성게' 선율을 명상곡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 불교사상과 수행의 궁극이라 일컬어지는 의상 스님의 저술 '일승법계도'를 주제로 기획한 '법성게'의 쓰기·읽기·그리기·듣기·걷기 등을 통해 누구나 '오척법성의 몸'으로 화엄의 세계를 온전히 느껴볼 수 있게 전시됐다.

의상화엄 문화체험전 추진위원장 우석 스님(화엄사 주지)은 개막식에서 "전시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의상화엄의 울림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법성가의 구래불(舊來佛)이자 여래출현(如來出現)인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상 스님 문화체험전은 11월 23일까지 진행됐다. 임은호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방글라데시-스리랑카, '지속가능' 불교 순례지 개발

11월 11일 스리랑카서 MOU 체결
불교·차 문화유산 잇는 생태 관광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가 양국 내 지속가능한 불교 순례지 개발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불교전문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지난 11월 11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양국의 회의 결과를 인용해 해당 개발계획을 보도했다.

아루니 라나라자(Aruni Ranaraja) 장관이 이끄는 스리랑카 외교부는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관광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강조했다. 논의에서는 불교 성지 순례 코스를 중심으로 녹색 관광, 차(茶) 문화유산 루트를 장려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이 논의됐다.

논의된 주요 프로젝트 중에는 불교 유적지와 양국의 특산품인 차 생산 지역의 연계를 통해 양국을 연결하는 공동 관광 루트 개발이 있다. 스리랑카의 주요 불교 성지인 캔디의 불치사, 아누라다푸라의 보리수나무, 담불라 동굴사원 등과 방글라데시의 파하르푸르에 있는 소마푸라 마하비하라 유적, 나오가온에 있는 고대 불교 승원 유적지를 연결하는 불교 관광 순환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마푸라 승원은 인도의 날란다 대학과 함께 대승불교가 꽃피던 시절 전 세계의 구법승들이 모이던 대학으로 유명했으나 현재는 그 인지도가 낮아 방문객이 적은 실정이다. 여기에 실론티로 유명한 스리랑카의 차 산지,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구릉 지대의 차 농장과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양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스리랑카 외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양국은 불교와 차라는 공동의 문화적 유산을 근간으로 지역 환경 보호 노력을 통합한 생태 숙박시설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 정부는 생태 보존과 지속가능한 여행에 중점을 둔 '녹색 관광'을 협력의 핵심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이미 다양한 경관과 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스리랑카는 방글라데시의 자체 생태 관광 모델 개발 지원에 관심을 표명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순다르반스 맹그로브 숲 등 다양한 자연유산을 보유한 방글라데시는 현재 연간 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양국 관계자들은 공동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인지도와 방문객 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간의 직항편 운행 협약도 진행되고 있다.

콜롬보에서 체결된 관광 협력 양해각서(MOU)는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에 나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관광 부문에서 책임 있는 여행과 탄소 감축을 향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는 불교 성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협의했다. 사진 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NEW 신상품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비바미 어싱(접지) 방한 부츠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